

데이비드 A. 데실바 박사, 베드로후서와 유다서 세션 2

다음 부분에서 저자는 이 서신에 대한 전반적인 목표와 그 서신이 왜 시급한지를 밝힙니다. 청중은 사도 베드로가 그들에게 영원한 자원을 제공하고자 하는 열망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듣습니다. 이는 사도 복음의 핵심적인 측면들, 즉 그들이 받은 믿음을 상기시켜 주고, 자신이 죽은 후에도,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게 된 후에도 그들이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자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고 여러분에게 온 진리 안에 굳건히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이러한 것들을 상기시켜 주고자 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 장막에 있는 동안, 한 가지 일깨움으로 여러분을 일깨우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알려 주신 대로, 내가 장막을 벗어 버릴 때가 가까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떠난 후에도 여러분이 이러한 일들을 기억하도록 기회 있을 때마다 힘쓰겠습니다. 이 구절은 베드로의 삶에 대한 두 가지 회상을 제공합니다.

저자가 청중들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부활하신 예수께서 베드로의 처형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전승을 떠올리기를 기대하는지, 아니면 저자가 베드로 자신이 다가올 죽음에 대해 그리스도로부터 영적으로 다른 계시를 받았는지 불분명합니다. 어느 쪽이든, 이 서신의 내용은 위대한 사도가 자신이 남겨두고 간 교회들에게 전하는 마지막 설교처럼 더욱 중대한 의미를 지닙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설교는 주로 청중들에게 그리스도의 재림과 일부 회의론자들이 기독교 신앙에 도입할 수 있는 수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혁신가들의 도전에 직면하여 신앙에 대한 사도들의 증언을 받아들이고 간직해야 하는 주된 이유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목격한 경험에 근거하며 인간의 창의력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는 두 번째이자 훨씬 더 발전된 기억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나타나심을 여러분에게 알게 한 것은 교묘하게 지어낸 신화를 좇아서가 아니라, 그분의 위엄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았을 때, 그 위엄 있는 영광 가운데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 그에게 전해졌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산에서 그와 함께 있을 때 하늘로부터 이 음성을 들었고, 이제 더욱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둠 속에서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고 새벽이 여러분의 마음에 떠오를 때까지 이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저자는 여기서 마가복음 9장 2절 이하, 마태복음 7장 1절 이하, 누가복음 9장 28절 이하에 나오는, 공관복음에 나오는 변형이라는 기이한 사건을 언급합니다.

혹시 이 에피소드에 새로운 활력이 필요할지도 모르니, 마가복음의 요약본을 공유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변형되셨는데, 그분의 옷은 세상 어떤 사람도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눈부시게 하얗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구름이 그들을 덮었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그의 말을 들어라." 그들이 갑자기 주위를 둘러보니,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님께서서는 인자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그들이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다.

첫째, 베드로후서 저자는 변형에 대한 자신의 이야기를 목격자 증언으로 제시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효과적인 논증에 관한 교과서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화자가 직접 만들어낼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목격자 증언, 맹세, 그리고 문서가 이러한 강력한 증거의 범주에 속합니다.

여기서 베드로의 목격 증언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부여하신 영광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베드로는 영원하신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기 전에 아버지와 함께 누리셨던 영광을 살짝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부활의 저편뿐 아니라 승천의 저편, 그리고 궁극적으로 주님과 심판자로 다시 오실 때 누리게 될 영광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분이 바로 바울이 이스라엘 언약에 대한 충성심을 약화시킨다고 믿었던 예수 숭배를 박해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향하던 중 마주쳤던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였습니다. 요한이 밧모 섬에서 목격했던 영광스러운 그리스도는 바로 이분이었으며, 결국 요한계시록을 남게 될 환상의 경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자는 변형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특별한 존귀와 영광을 부여하신 증거로 회상하는데, 이는 시편 8편 5절과 6절을 떠올리게 합니다.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나이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 굴복시키셨으니. 시편 8편은 원래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인류에게 허락된 놀라운 특권들을 기념하는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찬양을 시작하며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나이까?"라고 말합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이 "인자"에 대한 언급을 이 시편이 인류 전체뿐 아니라 특히 예수님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다는 암시로 받아들였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선언은 시편 2편 7절을 떠올리게 합니다. 시편 2편은 원래 왕의 시로, 다윗 왕조의 왕이 누렸던 신적 은총과 하나님의 우주 안에서의 그의 위치를 찬양하는 시였습니다. 그러나 이 시는 궁극적인 다윗 왕조의 왕이신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읽히게 되었습니다. 이 아들이로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열국을 기업으로 받고 철장으로 다스릴 것이라고 약속되었습니다.

초기 교회에서 이 사건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의 왕국의 도래를 예고하는 신탁으로 여겨졌습니다. 따라서 저자가 변형 이야기를 다시 들려주는 방식은 그 사건을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종말 시대의 왕이자 심판자로 다시 오심을 예견하는 경험으로 묘사합니다. 이는 마가가 이 사건을 이해한 방식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자신의 이야기로 구체화하면서, 변형 사건에 앞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언급했습니다.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 나라가 영광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기 전에 죽음을 맛보지 않을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가는 이 선언이 변형 사건과 그가 전하는 다음 사건, 그리고 지금까지 예수님 이야기에서 유일하게 앞선 사건과 정확한 시간적 흐름을 연결하여 보여주는 변형 사건에서 성취될 것임을 이해하고 청중에게 이해시키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옛새 후,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베드로후서 저자도 변형 사건을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이해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의 환상적 경험이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는 적어도 이 경험이 예언의 말씀을 더욱 확실하게 해주었습니다. 저자는 이 사도적 증언을 회상하는 것이 독자들에게도 같은 영향을 미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저자는 회의론자들의 반론과 탈신화화에 맞서 예언의 말씀이 미래의 확실성으로 선포하는 바를 굳게 붙잡으라고 독자들에게 촉구합니다.

이렇게 하여 주님의 새벽빛이 이 현세의 어둠 속에서 그들의 발걸음을 비추어, 날이 충만하게 밝아올 때 그들이 잘 걸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이루어졌음을 고백합니다. 변형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이야기가 앞으로 펼쳐질 것이라는 확신을 더해 줍니다. 교회의 위대한 전통들이 니케아 신경에서 고백했듯이, 그분은 영광 중에 다시 오셔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이며,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이 확신은 단순히 우리 머릿속에 머물거나 입술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저자는 이 서신의 끝부분에서 새 창조를 이루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대격변적으로 오실 것을 내다보며 이 확신을 밝힐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처럼 멸망될 운명에 처해 있으니,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앞당기는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저자는 변형 당시 예수님의 영광과 존귀가 드러났음을 제시하며, 예수님께서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선언을 인용합니다. 이는 시편 2편과 깊은 관련이 있으며,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섭리가 모든 민족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기대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예언의 말씀을 더욱 확실하게 하는 증거입니다. 여기서 저자는 잠시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과거 공동체가 받았던 참된 예언의 신뢰성을 확인하는데, 이는 주로 주님의 날을 내다보는 히브리 예언자들의 말씀을 가리킬 것입니다.

그래서 1장 20절과 21절에서 우리는 이렇게 읽습니다. “확실히 말하노니, 성경의 어떤 예언의 말씀도 사람의 자의로 지어낸 것이 아니니, 예언의 말씀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전해진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이 구절은 종종 성경 본문에 대한 개인적인 해석에 대한 경고로 읽혀져 왔는데, 이는 그 자체로 좋은 경고일 수 있지만, 저자가 의도한 바는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저자는 선지자가 받은 황홀한 경험, 꿈, 환상, 또는 신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표현을 확인하고 있으며, 따라서 선지자가 그 의미를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게 표현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로마 세계에서 우리는 소위 예언의 말씀들이 모호한 상황에서 전달되고 기록되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델포이의 신탁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신비롭고 환각적인 상태에 빠진 신탁은 사제들이 자신들이 이해하는 대로 최대한 기록해 두었던 소리를 냈습니다. 종종 모호하고, 어쩌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그 신탁들을 질문자들에게 전달하여 그들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해석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극단적인 예일 수 있지만, 성경 예언의 말씀 구성에는 오류나 오해의 여지가 없다는 저자의 단언에 대한 맥락을 제공합니다.

성령께서 선지자들을 인도하시어 하나님께서 기록하고자 하신 바를 정확하게 전하고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선지자가 그런 것은 아니며, 저자는 첫 언약의 백성 가운데서도 거짓이 자주 일어났으며, 오늘날에도 거짓은 하나님의 백성을 계속해서 괴롭힐 것이라고 청중에게 상기시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너희 가운데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시키는 생각을 품고, 자기들을 사신 주인을 부인하며, 스스로에게 임박한 멸망을 가져올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그들의 뻔뻔스러운 방중한 행위를 따를 것인데, 그 때문에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을 것이며, 그들은 거짓된 메시지를 탐욕스럽게 너희와 거래할 것이다. 그들은 옛적부터의 정죄가 더디지 않고 그들의 멸망이 잠들지 않는 자들이다. 어떻게 참된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할 수 있을까? 누가 하나님을 대변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저자는 개인의 도덕적 품성과 행위가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얻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가, 아니면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종종 매우 물질적이고 관능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뜻을 이루는가? 이 서신의 첫 번째와 세 번째 장이 시사하듯이, 신앙 공동체가 참된 선지자로 받아들인 자들, 즉 성경에 신탁이 기록된 제1성전과 제2성전 시대의 선지자들, 그리고 청중들에게 신앙을 소개한 영의 영감을 받은 사도들의 전통과의 일치는 또 다른 주요 기준이다. 바울과 요한 1서를 쓴 장로 모두 이에 동의할 것입니다.

저자는 미래 시제를 사용하지만, 서신의 나머지 부분이 전개되는 방식을 보면 이 거짓 선생들이 이미 도래했음이 분명합니다. 저자는 2장 10절부터 끝까지 현재 시제로 그들과 그들의 활동에 대해 언급하고, 3장 3절부터 7절까지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공격하는 그들의 행위에 대해 언급합니다. 또한 이 서신의 이 지점에서 우리는 유다서의 울림을 분명히 듣기

시작하며, 이는 2장 끝까지 이어집니다. 많은 주제가 관례적인 것이지만, 이러한 주제들이 집중적으로 다루어지고 한 장 전체에 걸쳐 평행하게 전개되는 것은 한 저자가 다른 저자의 저작을 통해 유사한 문제, 즉 사도 복음을 자기들의 목적에 맞게 변형하려는 혁신적인 침입자들을 알고, 가치 있게 여기고, 활용했음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이 자료는 맹목적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매우 다른 문화적 유산을 가진 청중과 상당히 다른 초점을 가진 경쟁 메시지 모두에 맞게 각색되었습니다.

학자들의 의견은 유다서가 더 독창적인 본문이며, 베드로후서 저자가 유다서의 주제 전개를 자신의 독자층을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신적 심판의 확실성에 초점을 맞춘 것이 베드로후서의 상황과 매우 관련이 있고, 유다가 복음에 대한 이기적인 혁신가들을 강력하게 비난하는 수사학적 기법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다서의 내용을 베드로후서가 수정한 부분에 주목하는 것은 베드로후서의 관심사와 독자층의 특성을 강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에서 우리는 유다서 4절에서 언급된 여러 주제와 유사한 내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혁신가들이 교회에 침투하여 파괴적인 가르침을 도입한 것,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주권을 부인한 것, 이런 사람들의 정죄가 오래전에 선포되었다는 사실, 적어도 이런 교사들 개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면 모든 이런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성경 기록에서는 그렇습니다.

유다의 경우, 침입자가 주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순전히 관행적인 행동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을지 모르지만, 주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후서 저자는 아마도 경쟁자인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약속을 부인한 것, 즉 그리스도께서 주님과 심판자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확신을 염두에 두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는 실질적인 결과도 낳았습니다. 신의 상벌에 대한 걱정에서 벗어나자, 자신의 쾌락을 위해 삶을 최대한 활용하는 길이 열렸고, 이제 그 길은 끝났습니다. 저자는 이러한 쾌락 추구가 기독교 단체의 평판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또 다른 우려를 제기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일반적으로 타락한 무신론자 집단으로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실상 대다수의 신들의 존재를 부정했기 때문입니다. 신들은 더 이상 공적인 축제든 사적인 모임이든 이웃과 제대로 된 시민적 연대를 보이지 않았습니니다. 이러한 모든 연대는 기독교인들이 거부한 신들에 대한 형식적인 인정을 의미했을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 지도자들은 기독교인들에게 가해질 수 있는 그러한 비난은 진정으로 덕이 있는 대의, 즉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들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가올 왕국에 대한 헌신에 대한 것이지, 부도덕하거나 노골적으로 파괴적인 행동이라는 정당한 대의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하고자 했습니다. 우연히 베드로후서 저자도 여기서 비슷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진리의 길은 분명 비방을 당할 것이지만,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을 내세우는 자들의 부도덕하거나 방종한 행위 때문에 비방을 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서신의 서두와 3장에서 신의 심판에 대한 기독교 신앙에 대한 경쟁

스승의 비판에 대한 저자의 신중한 답변 구성에서 이러한 우려를 어느 정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일부 사람들의 판단으로 편협하거나 지역적이라는 이유로 어려움을 겪는다면, 저자는 오히려 그것이 그리스-로마 윤리의 최고 이상과 신의 심판에 대한 믿음의 철학적 옹호 모두에 부합함을 보여줄 것입니다. 2장 3절의 결론 부분은 특히 흥미로운데, 3장에서 신의 심판이 지연되었다는 주장이 강조되기 때문입니다. 에피쿠로스와 그의 학파는 이를 신들이 사실상 인간의 불의에 관심이 없다는 신호로 여겼습니다.

저자는 이 경쟁 교사들의 의인화된 심판이 게으르거나 졸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두 번이나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경쟁 교사들을 잘라내지 않으셨다면, 그것은 단 하나의 목적, 즉 그들이 회개하고, 진정한 복음 전체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값비싼 희생으로 과거의 죄에서 깨끗해진 이후, 오직 의만이 거할 수 있는 하늘과 땅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길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저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벌하시기 위해 개입하지 않는다는 경쟁 교사의 주장을,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성스러운 역사 속 사건들을 다시 거론하며 반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홍수로 인한 고대 세계와 그 주민들의 멸망, 그리고 소돔의 화재를 인간의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과 이를 종식시키기 위한 개입 의지를 보여주는 역사적 사례로 여깁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또한 하나님께서 미래에 다시 개입하여 모든 불의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새 창조에서 제거하실 것이라는 유대교의 성경적, 사도적 확신을 뒷받침하는 역사적 선례가 되기도 합니다. 이는 아리스토텔레스가 그의 저서 『수사학의 기술』에서 제시한 논리의 일반 원리, 즉 미래는 일반적으로 과거와 유사하며, 우리는 과거를 검토함으로써 미래를 예측하고 판단한다는 원리와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선례들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 혹은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고백을 믿을 만하게 만듭니다. 2장 4절부터 10절까지에서 우리는 이것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어둠의 사슬로 타르타로스에 가두어 심판 때까지 보호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지만, 의를 전파한 노아의 여덟 아들을 지키시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새로 만들어 멸망에 이르게 하셨으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장차 닥칠 일의 본보기로 삼으셨지만, 무법한 자들의 부끄러운 행실에 슬퍼하던 의로운 자들은 구원하셨습니다.

저 의로운 사람이 그들 가운데 거하며 날마다 그들의 불법한 행실을 보고 소문을 들음으로 그의 의로운 영혼이 괴로움을 당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경건한 자들을 시련에서 구원하시고 불의한 자들을 심판 날까지 형벌 아래 두실 줄을 아시느니라. 더욱이 더러운 정욕으로 육체를 따르고 권위를 멸시하는 자들은 더욱 그러하리로다.

저자는 대홍수와 더욱 밀접하게 연관된 범죄한 천사들의 사례와 유다서 5절에서 7절에 나오는 소돔의 사례를 언급하며, 유다가 언급한 출애굽 세대에 대한 언급은 생략합니다. 그러나 저자는 이러한 심판 사건들에 대한 긍정적인 대응

사례, 즉 노아와 그의 가족이 홍수에서 구출되고, 롯이 소돔에서 구출되는 사건을 소개합니다. 이러한 이중적인 강조는 단순히 경쟁하는 교사들을 폄하하려는 저자의 목표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1장 3절에서 11절까지 제시했던, 의를 추구하는 데 대한 독자들의 지속적인 헌신을 장려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는 3장 1절에서 15절에서 논의할 다가올 심판으로부터의 구원으로 이어집니다.

창세기에서 방탕한 천사들과 홍수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홍수 이야기 전체는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에 나오는, 인간 여성과 교미한 천사들에 대한 짧지만 감질나는 언급으로 시작되는데, 이러한 연관성은 제2성전 유대 문학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콤란 주변 동굴에서 발견된 창세기 외경에서 라멕은 비정상적으로 아름다운 아들 노아가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 천사 중 한 명이 라멕의 아내와 성관계를 가진 결과일지도 모른다고 두려워합니다.

다른 본문에서는 홍수가 특히 천사들이 인간에게 가져다주고 인간에 의해 행해진 악 때문에 불가피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저자가 천사 감시자들을 홍수와 노아 모두와 긍정적인 대조로 연결하여, 불경건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자들을 보호하심을 증거한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저자가 노아를 의의 설교자라고 부르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창세기 이야기에는 노아가 이웃들에게 증거하거나 개혁하려 했다는 암시가 없지만, 제2성전 시대의 확장된 이야기에서는 그를 그러한 방식으로 묘사합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형제 신탁에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모든 민족에게 회개를 선포하여 모두가 구원받도록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요세푸스는 이 성경 이야기를 의역하면서 노아가 그들의 행동에 매우 불안해했고, 그들의 행동에 불쾌감을 느껴 그들의 성향과 행동을 개선하도록 촉구했다고 말합니다.

이 전통은 내부 집단의 구원에만 관심을 두는 경향에 맞서, 노아처럼 하나님의 의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이웃을 안전한 곳으로 초대해야 할 의무를 상기시켜 줄 수 있습니다. 유다가 자신에게 관심 있는 침입자들을 향해 했던 것처럼, 베드로후서 저자는 이제 경쟁하는 교사들의 인격과 동기를 전면적으로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주제넘고 오만한 그들은 영광스러운 존재들을 비방하는 데 두려움을 느끼지 않지만, 그들보다 힘과 능력이 더 큰 천사들도 주님 앞에서 그들을 향한 비난의 심판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이성 없는 짐승처럼 본능에 따라 행동하며, 오직 사로잡혀 멸망당하기 위해 태어난 자들입니다. 그들은 무지한 것들을 비방하고, 그들의 부패함 속에서 멸망당할 것이며, 불의의 대가로 불의를 경험할 것입니다. 그들은 낮에 잔치를 즐기는 자로 여기고, 오점과 흠이 되어 여러분과 함께 잔치를 벌이며, 항상 음녀를 찾고, 죄에서 쉬지 않고, 불안정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마음이 길들여졌으므로 저주받은 자녀입니다. 그들은 바른 길을 버리고 방황하며, 불의의 대가를 사랑했던 보솔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범법에 대한 질책을 받았습니. 말을 잘 못하는 당나귀가 사람의 목소리로 자신을 표현하면서 선지자의 광기를 방해했습니다. 만약

대부분의 학자들이 믿는 것처럼 베드로후서 저자가 유다서를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면, 그가 모세의 시체를 둘러싼 천사들의 논쟁이라는 기이한 사건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신의 심판에 대한 증거인 예녹서 1장 9절의 낭송도 생략했다는 점이 특히 흥미롭습니다.

이는 그 자신이 그러한 정경 외 저작들에 대한 열정이 부족하거나, 어쩌면 더 가능성이 높은 것은 그의 독자들이 그러한 저작들과 전승들에 익숙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믿는 것처럼 베드로후서 저자가 바울과 베드로의 선교 활동이 겹치는 지역 어딘가의 회중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면, 그들은 팔레스타인에서 통용되던 정경 외 저작들과 전승들과는 거리가 멀 것이며, 따라서 이 서신에서 그러한 전승들을 언급하는 것은 유익하기보다는 오히려 혼란을 야기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경쟁하는 교사들이 창조의 사다리에서 인간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영적 존재들을 비방하고 있다는 비난을 계속합니다.

그들이 어떤 의미에서 이런 행동을 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천사나 악마가 인간 존재에 대한 권위를 부인하는 것은 신이 인간사에 개입하는 것을 부인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미신적인 청중들이 존중하도록 가르침받은 영적 존재들을 경멸적으로 말함으로써 자신들의 자유를 주장했을지도 모릅니다. 청중은 스가랴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일화를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구절에서 미가엘은 유다서에서처럼 사탄에게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리라"라고 대답하지만, 모세의 시체 이야기처럼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은 더 이상 언급하지 않습니다.

저자는 경쟁하는 교사들의 철학적 허세를, 그들이 사실 깨달은 인간이 아니라 짐승 같은 존재 수준에서 행동하고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폄하합니다. 이는 그들이 먹고 마시는 것에 탐닉하고, 성적 밀회에 대한 욕망을 품고 있다고 주장하며,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의 동기가 되는 탐욕이나 소유욕에서 드러납니다. 초부유층과 유한계급은 하루 종일, 그리고 밤낮으로 잔치와 술자리에 빠져들었을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낮 동안의 그러한 방종한 나태함은 타락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이사야는 이미 그런 사람들을 정죄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쾌락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기 1세기에 쓰인 모세의 유언장 역시 불경건한 자들을 묘사하는 데 이러한 특징을 사용합니다. 그들은 속이는 자들, 오직 자신만을 기쁘게 하는 자들,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면에서 거짓된 자들, 하루 중 언제든 잔치를 즐기는 자들, 게걸스럽게 게걸스럽게 먹는 자들.

내가 "항상 간통녀를 찾아다닌다"라고 다소 자유롭게 표현했던 대사는, "간통녀로 가득 찬 눈을 가졌다"는 표현이 더 명확해졌습니다. 이 모호한 표현은 그리스어로 눈동자를 "코레이(korei)", 즉 처녀라고 불렀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음을 암시하는 듯합니다. 1세기 말이나 2세기 초에 저술한 플루타르코스는 눈에 "코레이(korei)"가 아닌 "포르네이(pornei)", 즉 매춘부를 품은 음탕한 남자에 대한 당대의 속담으로 보이는 내용을 인용합니다.

이 연관성을 찾지 못하는 사람도 요점은 알 수 있습니다. 이 선생들은 꼼짝없이 숨어 있습니다. 유다가 가인과 고라를 언급한 부분은 제쳐두고, 저자는 발람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발람이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 임무를 수행하기 전에 자신을 죽이려고 보내진 주님의 천사를 만난, 더 잘 알려진 사건과 관련하여 그렇게 합니다.

이 이야기는 민수기 22장 15절에서 35절에 나옵니다. 발람은 모압 왕 발락의 부름을 받았을 때 그에게 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마음이 누그러졌을 때에도, 그는 사자들에게 축복이든 저주든 하나님께서 그의 입에 넣어 주신 말만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모압으로 가는 길에 여호와와 천사가 발람의 길에 세 번이나 나타나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때마다 발람이 타고 있던 나귀는 길을 벗어나거나 결국 길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발람에게 다시 한번 공격을 받자 나귀는 말하며 앞에 있는 무시무시한 천사에게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그러자 발람의 눈은 마침내 나귀가 자신을 구해 준 위험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자는 이 경쟁적인 교사들이 신성한 것들에 대한 진정한 지식을 가진 척하면서도, 길에서 바로 그들 앞에 놓인 위험, 즉 그들 스스로는 부인하는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에는 눈이 멀었다고 암시합니다. 저자는 이 경쟁적인 교사들을 계속해서 비난하며, 그들이 부주의한 사람들에게 끼치는 위험뿐 아니라 스스로에게도 끼치는 위험을 강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마련하신 구원과 새 생명을 알고도, 그분께서 자신을 그토록 희생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삶의 여러 측면을 받아들이려고 돌아서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자들보다 더 나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아서 어둠의 어둠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헛되고 교만한 말을 하며, 그릇된 길로 행하는 자들에게서 실제로 벗어나려는 자들을 부끄러운 육체의 정욕으로 유혹합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약속하면서도, 그들은 스스로 부패의 종입니다.

누구든지 이긴 것 때문에 그 종이 된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주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하다가 다시 이겨지고 그런 것들에 얽매이면 그들의 나중 형편은 처음보다 더 나빠집니다. 의의 길을 안 후에 그들에게 전해진 거룩한 계명에서 다시 돌아서는 것보다, 차라리 알지 못하는 편이 그들에게 나왔을 것입니다.

참된 잠언에 표현된 것이 그들에게 임했으니, 개가 자기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깨끗이 씻겨 진흙탕에 뒹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유다서의 내용과 강한 공명을 듣습니다. 예를 들어, 경쟁하는 교사들이 말라버린 샘처럼 실질적인 것을 제공할 수 없다는 주장에서 말입니다. 그러나 저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도 그것을 거부하고, 이기적인 행위에 치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함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직면하는 위험을 소개합니다.

이러한 강조는 서두에서 예견되었는데, 덕과 거룩함의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과거의 죄에서 깨끗해진 것을 잊는 것과 마찬가지로 때문입니다.

2장 19절에서 저자는 중요한 지점에 도달하여, 에피쿠로스의 발자취를 따르는 경쟁 교사들이 청중에게 약속했던 자유와, 이 교사들이 노동하는 훨씬 더 수치스러운 노예 상태, 즉 욕망과 열정의 노예 상태를 대조합니다. 그는 여기서 잘 알려진 철학적 주제, 즉 무엇이 진정한 자유이고 무엇이 진정한 노예 상태인지를 다룹니다.

예를 들어, 알렉산드리아의 필로의 논문, 즉 모든 선한 사람은 자유롭다는 주장이나, 디오크리스토스의 자유와 노예 제도에 관한 14, 15번째 연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논문 모두에서, 진정한 자유는 하고 싶은 것을 무엇이든 할 수 있는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며, 진정한 노예 제도는 사회적 지위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진정한 자유는 자신의 감정, 갈망, 또는 신체적 감각에 의해 어떤 방향으로든 휩쓸리지 않는 능력입니다.

어떤 충동에 의해서도 비열하고 악한 행동을 하도록 강요받지 않는 자유입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진정한 노예 상태는 그 반대입니다. 자신의 저급한 욕망에 이끌려 정의, 용기, 지혜, 절제라는 보편적인 이상에 반하는 부끄러운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경쟁하는 교사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여 계속해서 육체의 정욕을 섬길 여지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복음이 인간에게 가져다주고자 했던 진정한 자유를 상실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경쟁 교사들의 설득에 넘어가는 사람은 누구나 같은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위험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저자에 따르면, 이것은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저자가 서두에서 언급한 주제인 하나님의 은혜로운 생명과 경건의 공급을 거부하는 것은, 그것을 모르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잘못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출애굽 세대가 말했듯이, 의도적으로 내린 가치 판단, 즉 하나님과 함께 약속의 땅을 향해 계속 나아가는 것보다 이집트에서 고기 가마의 공급을 누리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을 수반하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바로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수만 명의 거룩한 자들과 함께 심판하러 오실 것이라는 에녹서 1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서두에 언급했습니다.

저자는 유대교와 기독교 전통에 더 중요한 자료를 선호하여 이 언급을 삭제합니다. 첫째, 그들의 후자 상태가 전자보다 더 악화되었다는 것은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그는 쉴 곳을 찾아 물 없는 곳을 돌아다니지만, 결국에는 쉴 곳을 찾지 못합니다.

그러자 그는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겠다” 하고 말합니다. 그가 돌아와 보니, 그 집이 비어 있고 소제되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다른 일곱 영을 데리고 들어와서 살았습니다.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나쁘다. 이 악한 세대도 그와 같으리라. 베드로후서 저자는 구원적이고 윤리적인 의미에서 그리스도께 구원받았지만, 경쟁하는 교사들처럼 다시 옛 삶에 사로잡힌 사람의 입장에서 이 비유를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자료는 잠언에서 더 직접적으로 나오는 격언입니다. 잠언에서 자기
과멸적인 행위로 돌아가는 어리석은 자는 자신이 토한 것, 즉 이미 불건전하다고
판명된 것을 다시 먹는 개에 비유됩니다. 여기에 축산에서 쉽게 유래한 또 다른
격언이 덧붙여지는데, 이는 돼지에게 목욕을 시키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생명 안으로 들어가고, 예수님의 죽음과
성령의 부으심을 통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피로를 진정으로 걷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의 가치를 알고 존중하는 삶을 지금 살아야 할 의무를
안겨줍니다.

저자에게 이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에 거할 의를 위해 과거의 죄를
깨끗이 씻어내는 여정을 따라 꾸준히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그분이 주시는 삶이 선함을 맛보고 깨달은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 바른 길에서 벗어나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